리눅스 설치 모드는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번째는 윈도우 환경의 도스창과 같은 text 모드가 있고, 두번째는 리눅스 아나콘다를 이용한 GUI 인터페이스가 있습니다. 초보자 입장에서는 윈도우의 GUI 인터페이스와 마찬가지로 순차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도와 줍니다.

또한 아나콘다는 데이터 과학과 머신러닝 뿐만 아니라 일반 용도의 개발을 위한 배포판으로써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나콘다는 기업을 위한 지원 계획을 제공하는 같은 이름의 상용 제공처의 지원을 받습니다.

아나콘다 배포판은 데이터 과학에서 자주 사용하는 NumPy, 판다스(Pandas), Matplotlib 등의 패키지에 손쉽게 액세스할 수 있게 해줍니다. 아나콘다와 쉽게 묶이는 것은 아니지만 콘다(Conda)라는 사용자 정의 패키지 관리 시스템을 통해 사용 가능합니다.

콘다 설치 패키지는 파이썬의 자체 Pip를 통해 관리할 수 없는 까다로운 외부 바이너리 의존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각 패키지는 아나콘다에 의해 최신 상태로 유지되며 그 중 상당수는 속도를 위해 인텔 확장기능으로 컴파일이 됩니다.

아나콘다가 제공하는 다른 주요 이점으로는 그래픽 환경인 아나콘다 네비게이터가 있다. 네비게이터는 IDE가 아니지만 콘다 패키지 관리자와 사용자 구성 가상 환경을 포함해 아나콘다 기능을 위한 편리한 GUI 모음입니다. 또한 내비게이터를 이용해 주피터(Jupyter) 메모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IDE 등 제 3자 애플리케이션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아나콘다의 최소 설치 형태인 미니콘다는 시작하기에 충분한 기본 아나콘다를 설치합니다. 그러면서도 필요에 따라 다른 콘다 또는 Pip 설치 패키지를 통해 확장할 수 있습니다. 아나콘다의 풍부한 라이브러리 전체를 활용하고 싶을 때 유용하다. 단, 간소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나콘다는 레드햇에서 만든 설치 소프트웨어 중 하나입니다. 파이썬과 C 로 구성되어 있으며, 콘솔모드와 GUI모드에 함께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리눅스를 설치하게 되면 /root 밑에 anaconda-ks.cfg 그리고 /var/log/anaconda.log, /var/log/anaconda.syslog 가 생기게 되며, /var/log/anaconda.log 일종의 설치과정을 보여줍니다.

아나콘다도 소프트웨어이지만 아나콘다에 대해서도 로그 기록을 남기고 이 로그를 까보면 사용자가 설정한 부분과 모듈 콘트롤러, 하다못해 설정 실채조차도 로그 기록이 남습니다

/var/log/anaconda.syslog 시스템이 설치 되는 과정에서 하드웨어의 디테일한 정보를 보여주는 로그입니다. 처음 리눅스 커널부터 하드웨어의 자세한 정보를 담아주고 있고 이 로그 또한 설치의 전반적인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GUI 설치 시 /var/log/anaconda.xlog도 생기게 되는데, 이 부분 또한 설치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나콘다를 사용하는 이유는 Anaconda는 데이터 사이언스를 유연하게 하기 위한 도구이며, conda 라는 가상환경 관리도구를 사용합니다. Anaconda는 설치하기 쉬운 프로그램이며 앞으로 사용하게 될 다양한 개발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요컨데 구현해보고자 하는 Python 버전과 사용하는 패키지 버전이 내 환경과 다르다면 구현하고자 하는 환경과 동일하게 만들어 주기 위해 사용하게 됩니다.